

## 철도건설 현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일제점검

- 공단, 수질오염물질 유출방지 만전 -

공단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전국 164개 철도건설 현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591개소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일제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철도건설 현장에는 오·폐수처리시설 247개소, 오폐수방지망 97개소, 침사지 247개소가 설치되어 공사중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원천 차단토록하고 있으며, 이번 기간에는 환경영향평가 의무이행사항·배출허용기준 준수·방지시설 적정가동 등 설계대로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발생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염요소는 최대한 정화 처리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계	591	117	100	206	128	22
폐수처리시설	142	34	28	50	25	5
오수처리시설	105	24	33	23	17	8
오폐수방지망	97	10	20	42	20	5
침사지	247	49	37	91	66	4



## 원당역 철도교량 하부 생태공원 조성

- 생태숲과 생태탐방로 도시민 녹색갈증 해소 -

공단은 쓰레기 불법투기, 무단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던 일산선 원당역(경기도 고양시 소재) 철도교량 하부공간(4,980㎡)을 도심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으로 승인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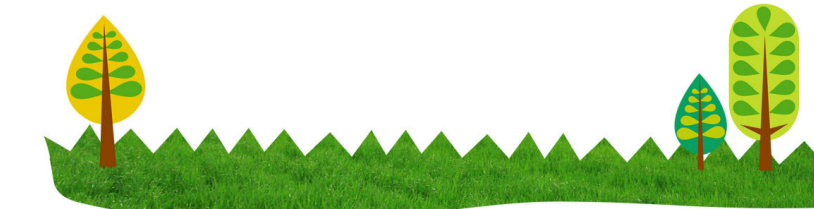
이 사업은 생태숲과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교량 하부 공간에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고양 누리길과 연계한 생태체험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휴게 편의시설도 설치하여 도시민의 녹색갈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4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준공 후 사업비 전액을 환경부가 지원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다.

최승선 품질안전경영처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심 미관을 해치는 철도교량 하부 폐선부지를 찾아 철도이용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창조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범례]
- 1. 진입광장/배설판
  - 2. 신재생에너지 시설
  - 3. 조화규임/외단
  - 4. 생태숲
  - 5. 생태습지
  - 6. 생태수로
  - 7. 휴식식물원
  - 8. 건강증진 시설
  - 9. 생태교육 시설



## 수서發 고속철도차량 실물모형 공개 및 KTX운영 경쟁체제 홍보

- KTX 경쟁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기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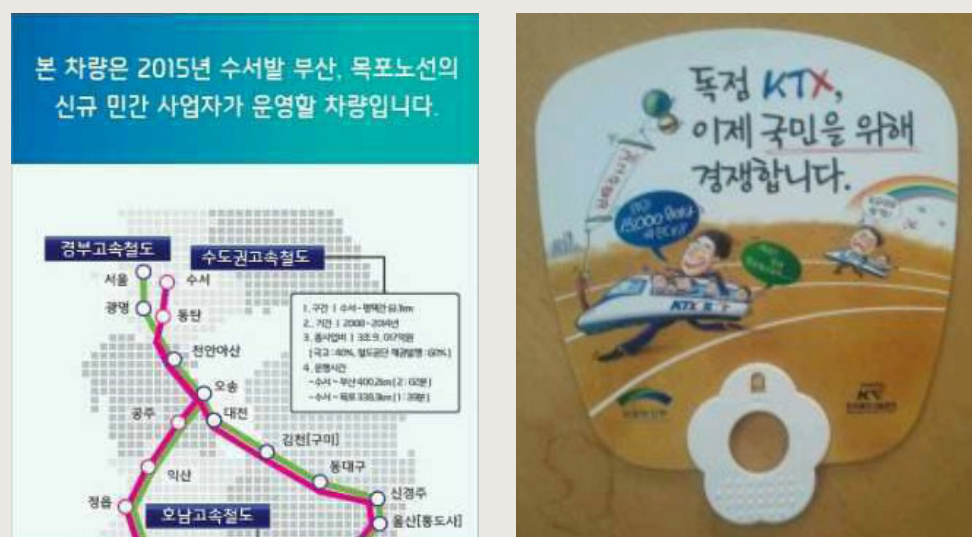
공단 기술본부 차량처(처장 김우식)는 2015년부터 수서發 부산, 목포노선에 투입할 고속차량의 모형을 지난 6월 14~20일까지 용산역에 이어 23~29일까지 익산역 광장에서 7일 동안 공개 전시한다.

전시장에는 모형전시 외에도 수서발 KTX운영경쟁체제 설명 내용이 담긴 팸플릿 및 부채를 관람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홍보활동도 동시에 전개하여 경쟁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속차량모형은 일반실 객차와 높이가 폭은 같고, 길이는 1/3 크기로 제작한 것으로서 차량 외부디자인은 물론 객실내부에 입장하여 의자, 선반, 바닥, 화장실 등의 실내설비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외안색, 하늘색 및 노란색 3종의 1/20 축소모형도 함께 전시되어 색상디자인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공개전시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차량제작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 고취는 물론 철도경쟁체제에 대한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로 조속한 민간사업자 선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본부 김정곤 기자)



## 네팔 철도공무원 분당선 쉴드터널 현장 탐방

- 신공법인 쉴드터널 높은 관심 보여 -



네팔 철도공무원들이 지난 12일 분당선 3구구 쉴드터널 현장을 방문, 한국철도의 첨단 건설기술력을 둘러보았다.

수도권본부 남부건설처에서 시행하는 분당선 쉴드터널 현장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처음으로 한강을 쉴드터널로 건너는 신공법을 적용한 현장으로 네팔 철도공무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공단 및 감리단 관계자와 함께 현황 설명, 동영상 시청 등 현장 체험행사를 가졌다.

네팔 철도공무원들은 쉴드터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사업과 연관시키면서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였으며, 청담정거장 및 쉴드터널 견학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수도권본부 정종진 기자)

## 경부고속대전도심 운행선 안전우리가 지킨다

- 충청본부, 운행선 인접공사 특별안전교육 시행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12일 경부고속철도 제6-2, 제6-3구구를 찾아 감리원, 원도급 및 하도급사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경부고속 2단계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사이에서 공사의 특성상 위험요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에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건설현장이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건설처(처장 하복수) 및 대전도심/포송평택PM부(부장 민병균)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최근 건설사고 및 열차운행선 사고사례 분석, 작업 단계별 안전수칙 등을 제시하여 작업자의 공감을 얻었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연계는 물론 발주처와 협력업체간 소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충청본부는 앞으로도 그 동안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사고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철도 건설 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찾아가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